

발견하고  
기록해 온

시간을  
공유하다

‘1부 부산예술인 아카이빙展’에서는 지역문화예술계의 사표(師表)로 기릴만한 예술인을 선정해 그들의 삶과 문화예술활동의 자료를 수집·연구한 결과를 선보입니다. ‘2부 부산문화재단 출판시리즈’에서는 「마을버스, 시장, 다방, 만화, 간판」 다섯 개의 주제로 나누어 우리의 삶에 녹아있는 부산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도시의 깊은 풍정을 살피려면 역사라는 씨실과 현재라는 날실을 엮어가며,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정감 있고 깊이 있는 부산의 수많은 실타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기간  
2021.11.20 SAT ~ 12.12 SUN (매주 월요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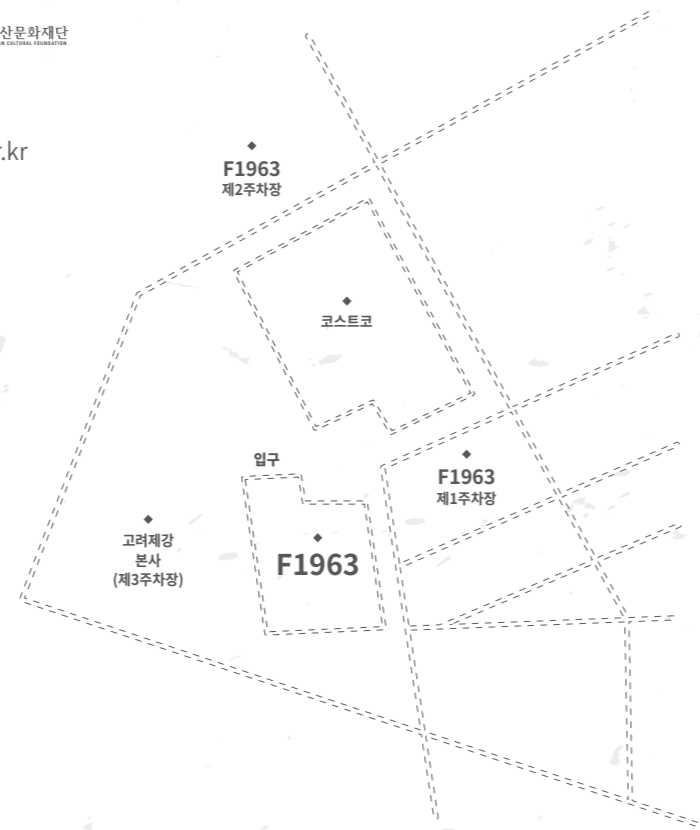
전시장소  
F1963 석천홀 부산 수영구 구락로 123번길 20

관람시간  
10:00 ~ 18:00 (입장마감 17:30)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KISwire

주관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홈페이지  
www.bscf.or.kr



부산문화재단  
F1963 기획전시

1부  
부산예술인 아카이빙展

2부  
부산문화재단 출판시리즈  
- 마을버스, 시장, 다방, 만화, 간판

# 부산展 문화소부 釜山전

F1963  
석천홀

2021.  
11. 20 SAT  
- 12.12 SUN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KISwire

부산의  
문화적 자원을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산은 일제강점기, 광복과 6.25 전쟁, 급속한 도시화 등 격변의 시대 속에서 단지 ‘오래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문화적 자원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부산의 풍경, 공간, 사람 등 역사와 지역성이 켜켜이 쌓인 다양한 문화적 자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삶 속에서 쉽게 잊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 ‘오래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고유한 이야기들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삶에서부터 그려진 나이테와 같음을 알게 됩니다.

요즘 ‘로컬의 재발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태어난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자원이 됩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산이 가진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부산展>에서는 부산문화재단에서 기획한 여러 아카이빙 사업 중 일부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부산展 빛·소·부 釜山전

## 1부\_ 부산예술인

### 아카이빙展

부산문화재단에서는 부산문화예술의 정신을 찾아 역사적 가치를 탐색하고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산의 삶, 예술로 기억하다>는 이름으로 부산예술인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계에 큰 업적을 남긴 예술인들의 작업을 집대성하고 문화사적 위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2년 연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먼구름 한형석 문화축전’과 더불어 매년 3인의 부산예술인을 선정, 예술인과 관련된 자료 수집·정리·연구하고 연구결과 성과물을 제작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문화축전의 주인공인故한형석 선생과 2020년도 선정 부산예술인 2인(故윤정규,故허영길),2021년도 선정 부산예술인 3인(허만하,故이상근,故황무봉)을 포함해 총 6인의 부산예술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학, 음악, 연극연출, 전통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부산예술인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으며, 이후에도 부산문화재단은 지속적으로 부산의 문화 예술인을 발굴하고 연구할 예정입니다.

## 2부\_ 부산문화재단 출판시리즈

-마을버스, 시장, 다방, 만화, 간판

부산문화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한 가지 주제를 정해「부산문화재단 사람·기술·문화 총서」(이하 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총 7권의 총서를 발간했으며, 발행연도에 따라 ‘부산의 시장, 부산의 점포, 부산의 만화, 부산의 마을버스, 부산의 다방, 부산의 해녀, 부산의 마을’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중 4가지 주제(마을버스, 시장, 다방, 만화)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청년문화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한 ‘B-SIDE 부산의 간판’은 부산의 사라져가는 간판을 재조명하기 위해 사진 예술가와 협업한 사업입니다. 14명의 청년 참여자들에게 사진 교육을 제공한 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의 16개 구·군을 다니며 직접 지역 이야기를 기록하고 가치를 발견한 사업으로, 사상인디스테이션 전시 및 책자 형태로 선보인 내용을 이번 전시에 맞게 재구성 하였습니다.

부산의 바다, 강, 산, 도심을 구석구석 다니는 마을버스, 활어의 거친 펄떡거림과 활력이 살아있는 시장, 아련한 추억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다방, 그 시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만화, 골목 안 짙은 향수를 품고 세월과 함께 바래가는 간판까지... 부산의 숨은 이야기를 찾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